

문제 1

1. “제시문의 언어들 은 단어 속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.” 비교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. 다만 발문에 따른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아요.

이 문제는 가-1과 가-2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하므로, (나)의 언어들 을 분류하려면 가-1과 가-2에서 비교가 되도록 구분지어야 합니다. 따라서, 새로운 의미보다는 규범의 파괴, ‘언어 규범의 파괴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게 더 타당합니다.

2. 따라서 2문단에서 1문단에서 비교한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? 1문단은 의미없는 문단이 되어버렸습니다. 또한 제시문 (나)의 언어들 을 분류하지도 않아습니다. 이는 비교 자체 대상 설정이 없음으로 대응이 실패됩니다.

3. “반면 제시문 가-2의 관점은 일탈로 낙인하지 않은 언어규범에서의 일탈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한다고 본다. 그 결과 사회 내에서 단편적이지 않은 참신성을 발휘함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또한 언어적으로 더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규범에 변화요구가 있을 때 그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.” 여기서도 내용은 맞지만, 결론 서술이 없습니다. 다시 읽어보세요, 가-2에서 일탈을 자유의지로 보니까 결론!이 없죠. 2번 지적과 같이 대상이 없으니까요, 2문단에 가-1을 통한 대응적 비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

4. 마지막 문단도,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대상 설정이 없어 비교로 볼 수 없으며, “제시문 가-2의 시각에서는 언어 질서유지에 경도되어 자유의지나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. 또한 단순히 줄임말의 형태로 언어가 주조됨에 따라 획일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점에서 개성이 무시되는 등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” 심지어는 내용마저 틀렸습니다.

5. 전체적으로 이 답안은 비교라고 볼 수 도없으며, 제시문 독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

문제 2

1. “제시문 (다)의 사례는 사회규범의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 변화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. 사회규범은 시대에 따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변화한다. 또한 개인의 의식이 성장하거나 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때 규범은 바뀔 수 있다. 이러한 사회규범의 특징으로는 법률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, 확산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.” (다)에서 핵심은 나라마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사회 규범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 까진 좋은데, 나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야 표 대응을 할 때 자연스럽게 논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1번 문제에 1번 지적과 마찬가지죠. 이 또한 없습니다.

2. 1번지적에 따라 A국과 B국의 결과는 한국과 같이 변화 없음/ 네덜란드 미국과 같이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대응시켰어야 정답이 됩니다. 하지만, 이에 대한 서술이 1번지적과 마찬가지로 부족함으로 인해 전무합니다. 따라서, 제대로된 표대응이라고 볼 수 없고

3. 해야 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, 같은 내용을 반복서술 함으로써 의미가 중복되고 의미 없는 문장들이 계속적으로 서술됩니다.